

# 누가 우리들의 치즈를 옮겨올까?

## Who Moved Our Cheese?



이종정 | Lee, Jong-jeong, KIRA  
에스아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감사 역임
- 현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동화처럼 쉽게 일깨워준 책으로, 출간되자마자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아마존 비즈니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언론에서 새천년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주목받았다. 화제의 책 제목을 이 글의 제목으로 패러디해 보았다.

우리가 건축주변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대다수 건축사들은 생활 그 자체가 위협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 “건축사사무소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변화의 몸부림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필수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라고까지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다.

우리 모두 ‘변화’를 화두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변화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극제가 되어 주기도 한다.

이미 지나가버린 좋은 시절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거나 변화의 기미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 건축 환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60년대 압축 성장을 시작으로 안정기, 성장기, 침체기, 회복기, 재침체기를 거치는 등 주기적인 성장변화를 겪어 왔다. 이런 주기적 현상을 호기기를 전제한 불경기로 오해하기 쉽다. 건축주변에서의 변화의 조짐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있었는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으로 일찍 회복기를 맞으면서 건축시장의 체질도 빠르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과 소비자트렌드 변화를 이끌어온 대형 시행사와 건설업체의 PF금융을 통한 프로젝트의 대형화, 복합

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를 불러왔다. 시대 상황에 밀려 과다하게 배출된 건축사들의 출혈경쟁, 무보수 감리, 계획 설계 등 과잉 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국가정책에 따라 부가업무까지 없혀진 근간에는 수주물량까지 감소추세여서 설계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무실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미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회복기에 발 빠르게 조직확장을 시도하여 대형화를 이뤄 국제경쟁력까지 갖추어간 대형사무소가 있는가하면 업무의 복합화로 분화된 영역에 전문화를 이루어 정착단계에 올라 있는 사무소도 있다. 변화에 뒤쳐져 이도저도 아닌 대다수의 소형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원들의 자세 변화와 함께 협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 이르렀다.

한 달 전에 건축사법이 개정되었다.

이제는 설계업무에 대한 보증과 배상책임까지도 생각해야 하고 건축사 등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자격유지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움직인다.

건축사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건축사 상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하여야 한다. 살피본 바와 같이 대내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건축사가 우선해야 할 일은, 폭넓은 기초 소양과 높은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고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로 변신하는 일이다.

법제도의 개선에 매달리기보다 먼저 우리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기운이 움틀 때 옮겨진 우리들의 치즈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